

#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신 현 구\*

## I. 머리말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고 개인적으로는 노년기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 생애기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이 감퇴하고, 건강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인생을 정리하고 반추하는 수동적인 시기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시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년기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판단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역시 중요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차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삶의 질의 주관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삶이 행복하다거나 또는 스스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며, 삶의 만족도를 통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은퇴 만족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기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 은퇴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은퇴라는 사건이 노년기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hin@kli.re.kr).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가진 의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 글에서 사용한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자료를 간단히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 II. 삶의 만족도와 은퇴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삶의 질’이란 용어는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개념이다(김태현 외, 1998). 이 용어 대신 안녕 혹은 복지(well-being),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이현송, 1997). 어쨌든 삶의 질은 그 개념 자체로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삶의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주관적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박경숙, 2003). 양적인 접근에서는 소득, 건강, 교육, 여가, 안전, 환경 등 생활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문자해독률, 평균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범죄율 등과 같은 지표 등이 삶의 질을 말해주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더하여 삶의 질은 주관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생활세계는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나 생활조건 등은 분명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지만,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해석 역시 삶의 질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경제적 부나 생활조건과 같은 객관적 요인들은 개인의 행복감과 비례하지만, 일정수준이 지나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사이에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태현 외, 1998).

특히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개인이나 집단 속성에 따라 그 양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근 들어서는 전체 집단을 대변하는 지표보다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수자 등 특정 집단의 특수성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경숙, 2003).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 노년기는 생물학적 기능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유대관계 축소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삶에 대한 만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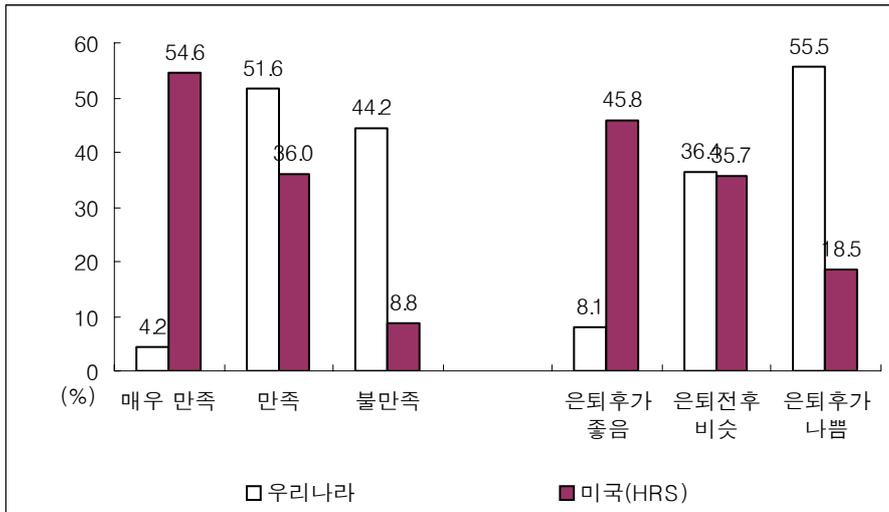
게 진행되면서 사회 차원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고, 개인 차원에서는 노년기 삶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령자의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년기를 삶의 쇠퇴기로 보던 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길어진 노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노년기 삶의 질 연구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은퇴는 개인 삶의 후반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이다. 은퇴는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오정’ ‘오륙도’와 같은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 정년연령과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퇴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 부족, 사회적·경제적 역할 상실, 소득 감소, 사회복지제도 미비, 자녀 학업 및 혼인 등으로 인한 재원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에에서의 은퇴는 개인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는 은퇴자에게 경제적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영적<sup>1)</sup> 상태의 변화를 초래하며, 상대적으로 일찍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 후 전반적인 적응수준과 생활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은퇴한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지연경·조병은, 1991; 신화용·조병은, 2001; 한희자·강은실, 2001). 이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는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만족도는 미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노동시장 은퇴자들이 은퇴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포함)는 응답이 56%,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더 좋다는 응답은 8%에 그친 반면, 은퇴 후가 더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5%로 훨씬 많아 노동시장 은퇴자 2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은퇴 후 상태가 은퇴 전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은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만 55%였고 만족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모두 91%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단지 9%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었다. 은퇴 전보다 은퇴 후가 좋다는 응답이 46%인 반면, 은퇴 후가 더 나쁘다는 응답은 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영적인 것이란 인간이 신체적·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서도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관심사를 의미하며, 보통 종교적인 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통해 측정한다(한희자·강은실, 2001).

[그림 1] 우리나라와 미국의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만족도



자료 :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우리나라), 2006.  
Health and Retirement of Study(미국),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특히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자료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영문 약칭으로는 KLoSA) 제1차 기본조사 자료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 8월에 제1차 기본조사를 시작하여 동년 12월에 종료하였다. 제1차 기본조사에서는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6,171개 가구에 거주하는 10,254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조사하였다.<sup>2)</sup>

2)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자료는 3월 중순에 최소한의 정리만 한 상태로 임시 버전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데이터와 설문지 및 코드북 등 관련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losa.re.kr> 또는 <http://klosa.kli.re.kr>)에서 제공한다. 자료 사용에 대한 비용은 없으며 사용자 등록 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최종 데이터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거쳐 7월 중에 공개될 계획이다.

조사 내용으로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7개 영역에 걸쳐 약 1,500개 설문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CAPI)을 통하여 이루어졌다(신현구·부가청·이혜정, 2006; 신현구·이혜정, 2006).

삶의 만족도 및 은퇴 만족도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살펴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포함된 설문 영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이 글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및 은퇴 만족도 관련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측정 영역

영역	측정 변수
인구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사회활동
가족	기혼 자녀와의 동거 여부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고용	은퇴 여부, 은퇴시기, 은퇴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문항은 모두 5개로서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삶의 질(행복감) 등 각각에 대하여 자신을 동년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보기는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만들어진 11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관련 5개 문항 가운데 삶의 질(행복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만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의 삶의 질을 묻는 문항(G029)

G029.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_\_\_\_\_님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면접원: 보기카드를 보시고 만족하시는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은퇴’에 대한 규정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응답자 개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 IV. 조사 결과

다음 <표 2>는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결과 나타난 고용상태이다. 전체 응답자 10,254명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3,848명이 조사 당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2,027명(20%)으로 나타났다.<sup>3)</sup>

전체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61점이었으며,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5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이 점수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취업자 다음으로 높은 것이며, 구직자(55점), 일시휴직자(57점) 등이 노동시장 은퇴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단순평균 비교를 통해서만 일하고 있는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을 은퇴한 중고령자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고용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수준

	평균점수	표준편차	사례수(%)
임금근로자	65.3	19.2	1,874 ( 18.3)
자영업자	66.1	18.4	1,697 ( 16.5)
무급가족종사자	66.3	17.3	277 ( 2.7)
구직자	55.2	24.5	422 ( 4.1)
은퇴자	59.3	23.3	2,027 ( 19.8)
일시휴직자	56.6	25.3	152 ( 1.5)
경제활동 무경험자	58.7	22.1	3,805 ( 37.1)
전 체	61.3	21.6	10,2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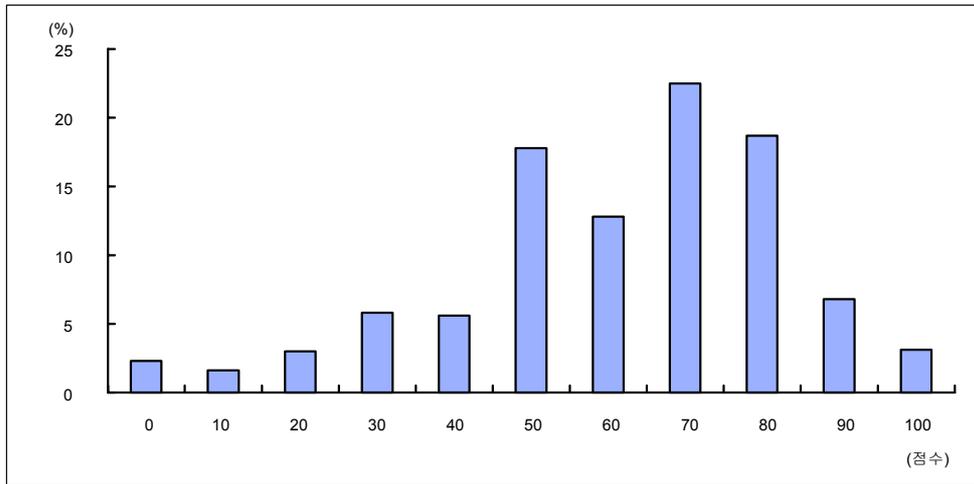
자료 :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11점 척도로 측정된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이 그림을 보면 70점, 80점, 50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노동시

3) 고용상태 분류는 전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장 은퇴자들이 삶에 대하여 크게 만족스럽지도 또 크게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점수 분포가 60점을 중심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의 생활만족도 분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김익기 외, 1999).

(그림 3)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분포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다음 <표 3>은 노동시장 은퇴자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은퇴 후 경과년수를 제외한 여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집단간 평균점수 차이는 모집단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의 경우 남성은 평균 60점으로 여성 58점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성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아직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번 결과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연구도 있고(권중돈·조주연, 2000; 이형실, 2003),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연구들도 있으며(박경숙, 2003; 박기남, 2004), 고령자의 성별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태현 외, 1999; 권철 외, 2006).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우리의 결과도 조심스럽게 일반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 은퇴자의 연령대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층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나 장년층보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숙, 2005). 그렇지만 중고령층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를 5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이번 결과에서는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각각 62점, 60점, 57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자. 먼저 유배우자가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무배우자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 여부 역시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노동시장 은퇴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 부양 가치관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다수의 고령자가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서구 사회처럼 사생활과 독립성을 선호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 문제로 자녀와 동거하게 된다면 자녀와 별거하는 고령자에 비하여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박경숙, 2003).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이상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각각 54점, 60점, 65점, 70점으로 올라간다. 학력이 높을수록 은퇴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예를 들어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 등—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sup>4)</sup>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 역시 기존 상식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강상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 역시 차이가 났는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범주로 나누어 본 결과 매우 불만족한다는 집단부터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까지의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37점, 55점, 65점, 71점, 74점으로 점차 올라갔다. 특히 매우 불만족한다는 집단과 불만족한다는 집단간의 평균 차이도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친목모임 등으로 살펴본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참여하는 사람과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4)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소득, 자산, 용돈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료 정리가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자원 관련 변수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경제적 자원 변수는 부분적으로나마 학력으로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은퇴와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자. 앞서 말한 대로 노동시장을 은퇴한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한 후 지나간 경과년수를 5년 간격으로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4개 집단 모두 59점 내외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은퇴 경과년수와 달리 은퇴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집단은 49점,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67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72점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을 은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삶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은퇴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3〉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사례수	F값
성	여성	57.7	24.7	866	6.70**
	남성	60.4	22.3	1,161	
연령대	50대 이하	62.0	23.7	443	8.04***
	60대	60.3	22.9	725	
	70대 이상	56.9	23.5	859	
혼인상태	유배우	61.7	22.2	1,526	71.28***
	무배우	51.7	25.2	501	
학력	초졸 이하	53.7	23.6	1,014	51.40***
	중졸	59.6	23.0	299	
	고졸	65.3	21.1	449	
	초대졸 이상	70.0	20.1	263	
주관적 건강인식	매우 불만족	37.1	24.8	297	147.86***
	불만족	54.8	22.4	627	
	보통	64.6	19.6	576	
	만족	70.9	16.0	480	
기혼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하지 않음	58.4	24.0	1,699	14.98***
	동거함	63.8	19.1	328	
사회적 활동	없음	50.1	24.9	621	57.10***
	있음	60.7	21.1	495	
은퇴후 기간	5년 이하	58.9	23.7	708	0.24
	6~10년	59.9	23.0	577	
	11~15년	59.4	24.1	236	
	16년 이상	59.9	22.3	477	
은퇴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71.8	19.2	87	385.89***
	만족하는 편이다	67.1	18.9	1,05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8.6	24.3	882	

주: \*\* p<0.01, \*\*\* p<0.001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특성들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각 특성별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중다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 은퇴후 경과년수와 사회적 활동은 앞서 <표 3>과 같은 범주로 구성하지 않고 연령, 경과년수 및 사회적 활동정도 등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모형 I 과 II의 차이는 은퇴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포함했는가 여부이다.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모형 I의 결과를 살펴보자. 성과 연령은 부정(-) 효과를 보인 반면, 이 두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모두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성 및 연령은 일원 분산분석 결과와는 달리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는 혼인상태, 은퇴후 경과년수, 학력, 주관적 건강인식, 기혼 자녀와의 동거, 사회적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beta=0.37$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활동( $\beta=0.16$ ), 유배우자( $\beta=0.12$ ), 기혼 자녀와의 동거( $\beta=0.12$ ) 등이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은퇴후 경과년수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 $\beta=0.06$ ).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졸과 초대졸자들은 초등학교 졸업자들과 집단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은퇴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모형 II의 결과를 살펴보자. 모형 I 과 마찬가지로 성 및 연령은 부정적인 효과를, 다른 요인들은 모두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및 연령, 은퇴후 경과년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 과의 차이점은 은퇴후 경과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는 점인데, 대신 은퇴에 대한 만족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표준화 회귀계수값을 모형 I과 비교하여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효과가 약 20% 감소한 상태에서( $\beta=0.37 \rightarrow \beta=0.30$ )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은퇴에 대한 만족도( $\beta=0.22$ )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 역시 모형 I에 비하여 영향력의 크기가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예를 들어 사회적 활동( $\beta=0.16 \rightarrow \beta=0.13$ ), 유배우자( $\beta=0.12 \rightarrow \beta=0.11$ ), 기혼 자녀와의 동거( $\beta=0.12 \rightarrow \beta=0.09$ ) 등—여전히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성 및 연령을 제외한 가족 관련 요인인 배우자 유무, 기혼 자녀와의 동거,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 하나인 학력, 건강 관련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사회관계 변수인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그리고 은퇴관련 변수인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삶의 만족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I			모형 II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상수	26.13***	4.26		30.33***	4.26	
성(기준변수: 여성)	-1.81	1.12	-0.04	-0.93	1.09	-0.02
연령	-0.01	0.06	-0.01	-0.07	0.06	-0.03
혼인상태(기준변수: 무배우)	6.66***	1.20	0.12	5.93***	1.12	0.11
종족(기준변수: 초졸 이하)	2.44	1.37	0.04	2.02	1.34	0.03
고졸	3.92**	1.27	0.07	2.75*	1.24	0.05
초대졸 이상	7.65***	1.54	0.11	5.85***	1.51	0.09
주관적 건강인식	7.98***	0.45	0.37	6.49***	0.46	0.30
기혼 자녀와의 동거	7.24***	1.27	0.12	5.80***	1.24	0.09
은퇴후 경과년수	0.14**	0.05	0.06	0.08	0.05	0.03
사회적 활동정도	0.57***	0.07	0.16	0.47***	0.07	0.13
은퇴에 대한 만족(기준변수: 불만족)				10.38***	0.97	0.22
F값	75.47***			82.83***		
결정계수	0.28			0.31		
사례수	1,998			1,998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 V. 맺음말

고령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고, 개인 차원에서는 노년기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 삶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생활을 둘러싼 객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노년기의 삶이 질을 결정하는 데에 역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는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환점이다. 전통적으로 은퇴는 노동력의 상실,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자원 상실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은퇴자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 정년연령을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퇴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 부족, 사회적·경제적 역할 상실, 소득 감소, 사회복지제도 미비, 자녀 학업 및 혼인 등으로 인한 재원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는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자료를 가지고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은퇴에 대한 만족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펴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은퇴에 대한 만족 여부,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기혼 자녀와의 동거 여부, 혼인상태(배우자 유무), 학력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들 가운데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은퇴에 대한 만족 여부 역시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LI**

### <참고문헌>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권 철·남철현·황해석·정한태·하순희·민경진·김석순(2006),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2(1), pp.66~74.
- 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총서.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pp.150~169.
- \_\_\_\_\_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pp.61~81.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 차이」, 『한국노년학』 24(3), pp.13~29.
- 신화용·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pp.39~51.
- 신현구·부가청·이혜정(2006), 「고령화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소개」, 『노동리뷰』 9월호(통권 21호), pp.90~99.
- 신현구·이혜정(2006),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이 조사 자료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7(2), pp.71~95.

- 이현송(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1집 여름호, pp.269-301.
-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pp.57-69.
- 정명숙(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pp.87-108.
-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pp.217-240.
- 한희자·강은실(2001),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의 상태 변화」, 『정신간호학회지』 10(2), pp.203-219.